

〈銀世界〉와 現實認識의 態度

趙 鎮 基

<目 次>

- | | |
|---------------------|-----------------|
| I. 序 論 | 2. 文明開化와 順應의 樣相 |
| II. 〈銀世界〉와 두 개의 現實眼 | 3. 前·後半部의 相互關係 |
| 1. 平民意識과 抵抗의 樣相 | III. 結 論 |

I. 序 論

開化期小説에 대한 논의는 60年代에 접어들면서 韓國文學의 傳統論議와 함께 활발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開化期小説(新小説)에 對한 研究는 있어 왔고, 그 研究 成果도 상당한 것이었다.¹⁾ 그러나 그러한 研究들은 作品 자체의 면밀한 분석이나 前代小説과의 관련 하에서 이루어졌다가 보다는 前代小説과 다르다는 데서 始作되었 으며²⁾, 西歐의 새로운 思潮를 받아들인 點을 強調하는 데 關心이 집중되었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한국의 近代文學은 〈移植文化의 歷史〉³⁾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60年代 후반에서 70年代 初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近代文學을 前代文學과 맥락관계를 밝히기 위한 作業의 一端으로 開化期 小説에 對해 關心이 집중되었다.⁴⁾ 그러나 이들 研究들도 個別的인 作品에 對

- 1) 林和：朝鮮新文學史，人文評論，(1940).
白鐵：朝鮮新文學思潮史，(1948)
全光鏞：新小説研究，(思想界，1955~1956)
趙演鉉：韓國現代文學史，(1956)
- 2) 趙東一：新小説의 文學史的 性格，韓國文化研究所，1973. p. 3.
- 3) 林和：前揭書.
- 4) 李在銑 教授는 ‘文學史的 斷層을 메워보자는 意圖’(韓國開化期小説研究，一潮閣，1972)에서 趙東一 教授(前揭書)와 宋敏鎬教授(韓國開化期小説의 史的 研究，一志社 1975)는 前代小説과의 繼起關係에 대하여 重點적으로 論議했다.

하여 면밀하게 分析, 檢討하는 데는 얼마만큼 거리가 있음도 숨길 수 없다. 그것은 물론 그를 研究目的이 個別的인 作品의 價值評價에 있지 않고 前代 小說과 相關關係를 밝히는 데 있었기 때문이지만 보다 先行되어야 할 것은 個別的인 作品研究가 아닌가 한다.

그런 가운데서 李人植과 그의 作品에 關한 研究는 다른 作家나 作品에 比하여 상당히 우세함을 보여 주고 있다. 特히 <銀世界>(1908)는 몇몇 研究家에 의하여 刮目할 만한 研究成果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⁵⁾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作品 <銀世界>를 보는 視線은 어느 一面을 強調함으로써 다른 한 面을 놓쳐 버린 아쉬움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開化期文學은 무엇 보다도 開化期라는 歷史的 특수상황과 關連하여 作品 속에 內在하고 있는 時代精神 내지 時代意志가 重視되어야 함은 물론 當代 知識人의 意識構造의 解明을 통하여 비로소 正當한 作品評價가 可能하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筆者는 지금까지 밝혀진 既往의 研究結果를 기초로 하여 <銀世界>가 지나고 있는 時代意識을 中心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II. <銀世界>와 두 개의 現實眼

作品 <銀世界>는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의 統一된 作品이라기 보다는 두 개의 小說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作品은 表面的으로는 前代 小說의 構造의 特性을 지닌 것⁶⁾으로 볼 수 있지만 면밀히 검토하면 두개의

5) 銀世界에 對한 研究 가운데 代表性인 것으로 全光鏞, 宋敏鎭 教授는 ‘開化期의 우수한 政治小說’로 평가하였으며, 崔元植 教授는 <銀世界>의 前半部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唱劇 <최병두타령>의 改作임을 밝혀 놓았으며, (銀世界 研究, 創作과 批評 1978, 통권 48號) 成賢臺 教授는 ‘作家意識의 破綻’으로 규경(李人植小說의 再評價(Ⅰ)) 嶺大東洋文化 第16輯)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精確한 作品評價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趙東一 教授는 <銀世界>를 前代英雄小說의 敘述構造로 파악하여 作品의 단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① 玉順, 玉男 男妹는 큰 뜻을 품은 개화인 최병도의 자녀이다.
- ② 물 다 非凡한 才能을 지녔다.
- ③ 탐관오리 강원감사 때문에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미쳤다.
- ④ 아버지의 친구인 김정수가 보호해 미국으로 유학갔다.
- ④' 학비가 없어 自殺했다.
- ⑤' 자살했으나 구출되고 미국인 자신가의 도움으로 공부해 계속해 개화의 포부를 품었다.
- ⑥ 미국학자 의병에게 잡혀 갔다. 前掲書, p. 62.

小説로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作品이다. 그것은 叙述構造面에서 오는 문제라기 보다는 作家意識 내지 現實認識의 태도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作中 主人公도 前半部에서는 〈최병도〉이며, 後半部에서는 그의 子女 〈玉順〉, 〈玉男〉이 男妹인 것이다. 그러므로 作品 銀世界는 開化期 二代에 걸친 家族史的 小説의 性格마저 지니고 있다.

실로 〈銀世界〉를 검토함에 있어 前半部와 後半部 中 어느 部位를 強調하느냐에 따라 作品의 評價는 판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최병도에 의하여 展開되는 前半部는 판소리적 소설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부패한 관료사회의 모순과 거기에 항거하는 강한 저항의 文學이라고 볼 수 있으며, 後半部는 李人植 小説이 갖는 外勢迎合의 親日行爲의 合理化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作品에서 前後 相反된 作家意識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崔元植 教授는 다음과 같이 밝혀 주고 있다(後述될 것임).

이인직의 소설 「은세계」는 「최병두타령」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관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한다면, 소설 「은세계」의 전반부는 「최병두타령」을 기반으로 이인직에 의해 개작된 것이고 「은세계」의 후반부는 이인직에 의한 창조적 첨가일 것이다.⁸⁾

이러한 陳述은 作品이 갖고 있는 前後關係를 고려할 때 상당히 說得力을 지니고 있다. 실로 作家 李人植은 日本이란 後光을 두른 開化貴族的 趣味의 人間이며, 사회민중과의 脈絡을 스스로 기피하려는 自足的 開化期 지식인⁹⁾이라는 點을 고려한다면 崔教授의 論考는 상당한 意味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면서도 실로 중요한 문제는 〈銀世界〉의 전반부와 후반부¹⁰⁾ 사이에는 現實認識의 태도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崔教授의 지적처럼 〈銀世界〉의 전반부가 이인직의 創作이 아니라 할 때 어째서 唱劇 〈최병두타령〉에다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첨가했을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作品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開化期 精神界의 양면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7) 崔元植: 前掲論文, p. 286.

8) 崔元植: 上掲論文, p. 286.

9) 李在統: 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p. 118.

10) 作品 〈銀世界〉는 總 60 페이지로 전반부가 33 페이지, 후반부가 27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作品構造上 前後關係에 量的으로 거의 對等하며 作家意識이란 側面에선 후반부에 더 많은 強音符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作品은 乙酉文化社刊 韓國新小説全集(I)을 使用했음.

點에서 흥미로운 일이다. 다시 말하면 開化期는 두 가지 뚜렷한 思想的 기반 위에서 전개되는 시기이다. 그 하나는 朱子主義에 깊게 침윤된 事大府 체중을 中心으로 洋倭排擊論을 거쳐 義兵活動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의국 선진제국의 문물을 직접 목도하거나 西學의 영향을 받은 開化至上主義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開化期의 兩極化된 現實認識의 態度는 開化期小說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現象¹¹⁾이지만 <銀世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點은 뒤에서 作品에 나타나는 現實認識에서 밝혀지겠지만 崔元植 教授의 지적처럼 처음부터 李人植의 創作이 아닌 唱劇 <최병두타령>은 李朝 後期에 대두된 平民意識과 부패한 관료사회에 대한 強烈한 저항을 보여 준 것으로 그러한 現實認識은 그대로 후일의 義兵運動으로 확산되어진다는 點이다. 그런데 反하여 外勢迎合의 親日作家 李人植은 民衆과의 脈終이 닿지 않았던 그로서는 이미 民衆 속에 깊이 공감을 불러 일으켜 준 <최병두타령>을 改作함으로써 그의 開化至上主義를 民衆들에게 심어 주려는 意圖가 作品 <銀世界>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처음부터 開化至上主義者들이 민중과 傳統을 떠난 위치에서 盲目的으로 開化만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적 파탄을 초래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開化派의 진보의식은 한 발은 韓國史의 內在의 요구에 밀고 있었지만, 다른 한 발은 민중을 떠난, 그리고 전통을 떠난 西洋과 日本의 輸出理論에 환상적으로 발을 붙이고 있었던 것이다.¹²⁾

新小說作家가 지닌 開化意識, 즉 新文化受容의 態度는 外面的 妥當性과 內面的 不當性이라는 모순점을 드러내는 사상적 破綻을 보이고 있다.¹³⁾

이러한 思想的 파탄은 <銀世界>의 경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며, 끝내 이 作品이 未完으로 끝날 수 밖에 없게 된 한 理由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作品 <銀世界>를 前半部와 後半部로 나누어 거기에 나타나는 時代意識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앞에서 지적한 두개의 思想的 기반을 어떻게 受

11) 開化期小說의 두 유형으로 經驗的 敘事體와 虛構的 敘事體로 區分하고 前者가 當代를 危機로 認識하고, 後者는 外勢迎合의 要素로 파악하고 있다. (李在鉉, 開化期 敘事文學의 두 類型, 국어국문학, 68, 69 號, 1975)

12) 金泳鎬: <侵略>과 <抵抗>의 두 가지 樣態, 文學과 知性, 1970年 겨울, p. 297.

13) 申東旭: 新小說과 西歐文化受容, 韓國現代文學論, 博英社, p. 242.

容하고 있으며, 전후반부의 相互關係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平民意識과 抵抗의 構相

〈銀世界〉의 前半部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최병도(최병도)를 주인공으로 하여 강원감사의 苛斂誅求에 正面으로 反撥하다 끝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銀世界〉의 前半部는 그것의 原典이라 할 唱劇 〈최병두타령〉의 대본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침착되어 小說 〈銀世界〉의 前半部로 定着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考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유감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一次的으로 作品을 검토하면서 李人植에 의해 첨가된 面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살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것은 그의 다른 作品에서 보여지는 人物設定의 態도와 現實認識의 姿勢와 관련하여 검토할 때 가능해지리라 믿는다.

실상 〈銀世界〉의 前半部는 기본적인 서술구조에 있어서나 現實認識의 態度는 李人植의 다른 作品과 상당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銀世界〉의 전반부를 이루는 기본적 골격은 李人植의 創作이 아니라는 것을 反證하는 要素가 된다. 실상 〈銀世界〉의 전반부를 事件의 進行순서에 따라 作品의 단락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 (1) 무대와 人物의 설정—강릉의 경금, 최병도(최병명)
- (2) 강원감사의 인물됨과 將差가 최병도를 잡으로 음
- (3) 김진사에 의해 民擾가 일어나 장차를 위협
- (4) 최병두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감영으로 자진 출두
- (5) 감사의 가렴주구와 최병도의 저항
- (6) 마을 사람들 최병도를 걱정
- (7) 최병도의 開化意志와 감사(부패관료사회)에 대한 비판
- (8) 최병도의 죽음과 장례식

以上の 단락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만으로도 완결된 한 편의 劇의 小說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中心으로 作品을 우선 검토하면 〈銀世

14) 〈銀世界〉의 전반부를 崔元植教授는 4段落로 나누고 그것이 〈춘향전〉의 뒷과정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아 판소리系小說의 發展의 모습을 강조했다. 前掲論文, p. 289 參照.

界)의 전반부에서 開化期 新小説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開化意志가 극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야기의 中心課題는 부패한 관료사회에 對한 비판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락 (7)에서 최병도가 開化意識을 갖게 된 動機를 金玉均과의 만남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部分은 全體的 서술과 약간의 이질성을 보여 주는 바 이는 적어도 작가 이인적이 의하여 첨가된 部分이 아닐까 한다.

최병도는 강릉바닥에서 재사로 유명하던 사람이라, 갑신년 변란 나던 해에 나이 스물두 살이 되었는데 그 해 봄에 서울로 올라 가서 개화당의 유명한 김옥균을 찾아 보니, …中略… 최병도가 김씨를 보고 짐복이 되어서 김씨를 대단히 사모하는 모양이 있거늘, 김씨가 또한 최병도를 사랑하고 기이하게 여겨서 친하 형세도 말한 일이 있고, 우리 나라 정치 득실(得失)도 말한 일이 많이 있으나 우리 나라를 개혁할 경륜은 최병도에게 말하지 아니 하였더라. 갑신년 시월에 변란이 나고 김씨가 일본으로 도망한 후에 최씨가 서울로 내려가서 재물 모으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경영인 즉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 부인과 속슨이를 데리고 문명한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여 지식이 넉넉한 후에 우리 나라를 불붙고 백성을 건지려는 경륜이다.¹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병도의 開化意識은 전적으로 金玉均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실상 그가 감영에 잡혀 가 감사와의 對決에서 그가 主張하는 바는 開化意志와는 關係 없이 王道政治 내지 道德政治의 필요성을 力說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當代 開化至上主義를 표방한 開化派의 思想的 기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당대를 위기로 인식한 衛正斥邪派의 思想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물론 衛正斥邪派의 思想도 한 갈래로 규정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이 保守性을 강하게 지녔으로써 그들의 進歩性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집권관료의 부패, 國家紀綱의 문란, 수탈로 인한 민력(民力)의 파괴, 異端思想의 침투로부터 國家를 구출하기 위해 王道政治를 主張하고 집권관료의 부패에 맹렬한 공격을 했다는 사실¹⁶⁾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銀世界의 전반부에서 보이는

15) 銀世界, 韓國新小説全集 I, 乙酉文化社, p. 432. 以下 作品引用은 위의 책을 사용하고 作品末尾에 面數를 밝힘.

16) 姜在彦은 近代朝鮮의 思想, (紀伊國屋新書 1971, 東京 p. 47)에서 위정척사파의 思想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衛正斥邪思想そのものななかた進歩性を認めることは困難である。かれらがいう「内修」策は執權官僚の腐敗, 國家紀綱の紊亂, 亂脈な收奪による民力の破壊, 異端思

것은 정감사로 대표되는 당대 관료사회에는 매관매직과 거기에 따르는 수탈이 있을 뿐이다.

그 (감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고? 굶어서 바치는 일이라. 굶기는 무엇을 굶으며 바치기는 어디로 바치려고? 강원일도에 먹고 사는 재물을 뺏어다가 서울있는 상전에게 바치는 일이라. …中略… 대체 그런 상전 심기기는 어렵고도 쉬운 터이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만일 백성을 위하여 청백리노릇만 하고 상전에게 바치는 것이 없을 지경이면 가지고 있는 인(印)복지를 며칠 쥐어 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터이요. …中略… 쉬운 것은 무엇이고? 우물고누 칫수로 백성의 피를 굶어 바치기만 같하면 그만이다. (pp. 421-422)

이처럼 當代 관료사회의 부패는 특정관료의 차원에서 벗어나 社會構造的 모순으로 확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法이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고 <늑피에 가로왈자같이 법을 써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있는 죄도 벗겨 주는 세상> (p. 419)이고 보면 당대 관원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재물 있는 사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영의 將差들이 최병도를 잡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김정수>에 의해 民擾가 일어나 일시적 危機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자진해서 감영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뿌리 깊은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했을 때 그러한 질곡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정면대결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고 하겠다.¹⁷⁾ 이와 같이 감사와 최병도의 대결은 단순히 個人的인 次元에서 벗어나 집권관료세력과 일반 민중과의 대결이란 문제로 확대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권세력이 자기의 신분의 보호를 위해 민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지만 최병도는 논리정연하게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官庭發惡이란 또 다른 罪名으로 斷罪될 뿐이다. 그러나 <최병도>의 行爲는 민중과 깊은 유대 속에서 우러 나온 것이며, 나아가서 민중의 공감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민중과

想の浸透から封建的イデオロギーの危機を救出よること、そのために王道政治を實現することであった。このような「内修」策はかれらのきびしい「外攘」策と論理的に表裏一體をなすものである。だから官職を眼中におかないかれら衛正斥邪論者の清議は大院君の鎖國攘夷策に一致しながら、民力を破壊する内政上の缺陷については容赦な糾弾の矢を放った。

17) 成賢慶 教授는 이 點에 대하여 최병도의 行爲와 김정수의 人物됨을 僞善的인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前掲論文, p. 7 參照.

집권세력의 갈등을 克明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비판세력으로 성장한 당대 平民意識의 발로로 볼 수 있다.

본래 그 동네에서 최병도가 무척히 잡혀간 것은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는 터이라 최병도가 인심을 그렇게 얻은 것은 아니나, 강원감사에게 학정을 받고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라, 초록은 한 빛이 되어 감사를 원망하고 최병도의 일을 원통히 여기던 차에, 최병도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남의 일 같지 아니하여 동네사람들이 남녀노소없이 최병도의 집에 와서 화롯불을 질러 놓고 밤을 새우면서 공론이 부산하다. (p. 430)

이처럼 <최병도>의 저항은 민중의 동조와 깊은 관련을 지닌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農民에 의해 불려지는 삼입가요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作品 가운데 九篇의 삼입가요를 통해 감사의 虐政과 최병도의 無罪함을 노래함으로써 官權에 對한 민중의 反撥意識을 더욱 고취하고 있음¹⁸⁾을 알 수 있다.

삼대독자 최서방님 조실부모하였으니 불효 부제 죄목 듣기 그 아니 원통한가? 순사도 그 양반이 정씨성을 가지고 돈 소리에만 귀가 길고, 원망소리에는 귀먹었는데 여여허 여여허 여여라 상사디이야.

우리동무 내 말 듣게. 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입고 남거든 돈 모을 생각 말신술 먹고 노름하고 놀대로 놀아보세, 마구 뺏는 이 세상에 부자되던 경치느니, 여여허 여여허 여여라 상사디이야. (pp. 426-7)

여기에서 당대 민중이 집권관료의 가렴주구에 대하여 역설적인 表現으로 반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실상 9편의 삼입가요는 모두가 당대 현실을 풍자, 야유 등의 手法으로 告發함으로써 현장성을 지니고, 높은 정치성에 도달¹⁹⁾했음은 물론 <銀世界>의 전반부가 당대 현실을 認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관료사회의 부패로 民力이 파괴라는 점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집권관료와 民衆과의 反目은 外勢의 侵略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點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의 克服案은 德治國家를 건설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德治國家의 건설만이 外勢로부터 나라를 守護할 수 있다는 인

18) 全光鏞 : 韓國小說發達史(下) 韓國文化史大系 V. 高大民族文化研究所, p. 1192.

19) 崔元植 : 前揭論文, p. 293.

식은 〈銀世界〉의 전반부에서 가장 強調되는 문제라 하겠다. 이 점은 〈최병도〉가 감사의 마지막 심문에서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죄없는 사람 하나를 죽이며 죄없는 사람 하나를 형벌하는 것은 만승 천차라도 삼가서 아니하는 일이고, 또 못하는 일이 옳시다. …中略… 옛말에 하였으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니, 그 말을 생각해서서 이 백성들을 천히 여기지 말으시고 희생같이 알지 말으시고, 원수같이 대접을 맏시사. 순사도께서 이 백성들을 수족같이 알으시고, 동생같이 여기시고, 어린 자식같이 사랑하시면 이 백성들이 무궁한 행복을 누리고, 이 나라가 태산과 반석같이 편안할 터이오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여 백성이 도탄에 들을 지경이면, 천하의 백성 잘 다스리는 문명한 나라에서 인종을 구한다는 옳은 소리를 창시하여 그 나라를 뺏는 법이니, 지금 세계에 백성 잘못 다스리던 나라는 많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읍니다. …中略… 우리 나라도 백성에게 포악한 정사를 행할 지경이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사도는 못보시더라도 순사도 자체는 볼 터이올시다. (pp. 433-4)

이와 같은 〈최병도〉의 主張은 開化期 新小説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外勢迎合의 要素와는 完全히 이질적인 것이며 오히려 開化期를 危機로 인식하고 自主와 民權을 위한 自保的 民族主義를 바탕으로 한 저항문학의 하나²⁰⁾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當代의 危機를 民族主體의 힘으로 그 克服이 可能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當代를 정당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銀世界〉의 전반부가 지니고 있는 現實認識의 태도는 그것이 李人植에 의해 창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 주는 동시에 李人植에 의해 별로 改作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최병도〉가 主張하는 內容은 오히려 유교적 王道政治를 구현하므로 危機에서 국가와 민족을 救濟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思想的 基盤은 당대 朱子主義에 바탕을 둔 衛正斥邪派의 主張과 一致하고 있다는 점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銀世界〉의 전반부는 朝鮮 後期 平民意識의 成長과 함께 집권세력의 失政을 批判하는 저항문학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20) 李在銑 教授는 開化期小説의 두 類型中 經驗的 敘事體의 特性의 하나로 自保的 民族주의에 바탕을 둔 저항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前揭論文 參照.

2. 文明開化와 順應의 樣相

〈銀世界〉의 후반부는 〈최병도〉의 子女 〈옥순〉과 〈옥남〉이를 中心으로 展開되는 部位로서 李人植의 다른 소설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 질 수 있다.

〈銀世界〉의 후반부는 우선 그 구성에 있어서 前代小說의 서술구조인 英雄의 一生과 一致를 보이며, 이러한 서술구조는 新小說이 가지는 공통적 서술구조라 하겠다. 그리하여 趙東一教授도 〈銀世界〉의 단락을 分析하는 자리에서 후반부에 초점을 맞추어 英雄小說의 구조로 파악한 바 있다.²¹⁾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銀世界〉는 前後半部를 分離시켜 理解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은세계〉의 후반부는 前半부와 有機的 關係가 아니라 別個의 作品 性格을 지니며, 續篇 내지 後日譚의 文學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후반부의 시작도 〈玉男〉의 出生談으로 비롯되고 있다. 그런데 〈玉男〉이는 遺腹子인 동시에 어머니마저 미침으로 乳母의 손에서 자라난다. 父母와의 유대가 결연됨으로 〈玉男〉은 고아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고아의식은 조선이라는 역사적 토대의 絶緣²²⁾을 뜻하는 동시에 새 時代의 主人公으로 自負하는 開化期 知識人의 정신적 被綻의 한 징후이기도 하다.²³⁾

한편 〈玉順〉(玉男)이 男妹는 新小說의 공통적 요소인 美國留學을 떠나게 되는데 이를 주선하고 同行하는 〈김정수〉의 思考方式도 철저하게 美國留學의 필요성을 認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現象은 물론 〈銀世界〉에만 국한된 問題가 아닌 것으로 盲目的 西歐志向의 開化期 知識人의 상투적 行路를 盲目的으로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

옥남이 일곱 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를 만나본 후로 옥순이 남매가 밤낮으로 울기만 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 아니 하려는 고로, 김씨가 최병도 생전에 모은 재산만 남겨두고, 김씨의 손으로 늘인 전장(田莊)은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옥남이 남매를 미국에 유학시키러 가는 길이라. 화성돈에 데리고 가서 변화하고 경치 좋은 곳을 구경시킨 후에 옥순이 남매 공부할 배치를 다하여 주었는데, 옥남이는 어린아이다 좋은 구경에 정신이 팔려서 집 생각을 아니 하나, 옥순이는... 고국생각만 한다. (p. 450)

21) 趙東一: 前掲書 p. 62. 註 (6)을 參照할 것.

22) 崔元植: 前掲論文, p. 295.

23) 이러한 點은 李光洙에 와서 그 절정에 이르며 그의 〈子女中心論〉이나 〈民族改造論〉等이 傳統否定과 함께 새 世代意識의 表現이며 그의 小說主人公이 갖는 성격적 특징이기도 하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김씨가 玉男이 男妹를 유학시키는 것은 소위 文明開化를 위해서나, 조선의 來日을 경영하기 위한 강한 意志와 소산이 아니라 失神한 어머니와의 生活를 격리시키려는 데 불과하다. 거기다가 玉男이 男妹는 더욱 그들이 유학을 해야 할 理由나 目的도 없다. 그러한 그들 男妹에게 보호자인 김씨의 죽음은 끝내 그들 허약한 男妹에게 自殺을 시도하도록 한다. 실로 新小説, 特히 李人植小説에 있어서 自殺의 시도와 救助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들 作中人物은 救助者의 영향 아래서 生活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고난의 克服을 自力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外部의 힘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외세영합적 思考의 하나임에 틀림 없다. 特히 救出者가 外國人이고 보면 그들에게 民族意識이란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民族과 傳統에 對한 否定 내지 自己卑下意識마저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됨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옥순이와 옥남이가 자라나는 세 정신에 날마다 들느니 국가를 위하는 말 뿐인 고로, 옥순이와 옥남이는 나라이라 하는 말이 뇌에 박히고 정신에 젖었더라. 그 후에는 다시 세역기 아니쓰의 교육을 받더니 마음이 한층 더 넓어지고, 목적 범위가 한층 더 커져서, 천하를 한집같이 알고 사해(四海)를 형제같이 여겨서, 문은 덕의상(德義上)에 두고 마음은 인애적(仁愛的)으로 가져서 구구한 생각이 없고 활달한 마음이 생기더니, 학문에 낙을 붙여서 고향생각을 잊어 버린다. (p. 456)

이처럼 外國人에 의해 主體性이 상실되고 나아가서 그들 意識의 內部에는 서양에 대한 선망과 傳統 내지 대중에 對한 무시가 도사리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한편 〈玉男〉이가 主張하는 改革의 내용이란 따지고 보면 主權喪失을 自招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용희 원론은 황제 폐하께서 정치를 개혁하신 해〉(p. 464)²⁴⁾로 규정하고 소위 日本의 次官政治²⁵⁾의 실시를 환영하고 있음을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高宗의 讓位事件은 民族의 義憤을 불러 일으켜 전국에서 義兵이 일어나고 國權守護에 총력을 집결시켰다는 사실과 엄청난 거리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처럼 歷史意識의 결여는

24) 海牙密使事件으로 高宗의 강제 讓位事件을 의미하며 이로서 七箇條의 〈韓日新協約〉이 체결되고 실질적인 統監政治가 실시되었음. (震壇學會, 韓國史, 現代篇, p. 956 參照)

25) 李基白: 國史新論, 第一出版社, p. 339.

帝國主義的 日本을 施惠者로 紹介하게 되며, 義兵活動의 不當性을 力說하게 된다.

절 동구 밖에서 총소리 한 번이 탕 나면서, 웬 무뢰지배 수백 명이 들어오더니 옥남의 남매를 붙들어 내린다. …中略…『네가 웬 사람이며, 머리는 왜 째였으며, 여기 내려오기는 무슨 정담을 하러 왔느냐? 우리는 강원도 의병이라 너같은 수상한 놈은 포살하겠다』하며 기세가 당당한지라 옥남이가 천연히 나서더니, 일장 연설을 한다. 『여보시오 우리 동포, 들어 보시오. …中略… 의병도 우리 나라 백성이요, 나도 우리 나라 백성이라. 피차에 나라 위하고 싶은 마음은 일반이나, 지식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다른 법이라. …中略… 여러분 동포가 의리를 잘못 잡고 생각이 그릇들어서 요순같은 황제폐하 칙령을 거스리고 흥기를 가지고 산야로 출몰하며 인민의 재산을 강탈하다가 수비대 일병 사오십 명만 만나면 수십명 의병이 더 당치 못하고 패하여 달아나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사망 무수하니, 동포의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만 없애고 국가 행정상에 해만 끼치는 일이라. 무엇을 취하여 이런 일을 하시오.』(p. 466)

여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義兵들을 <무뢰지배>로 몰아 세우고 이들 行動을 어리석은 일로 규정하고 그 이유를 자기네(玉男)와 같은 開化派)와 <지식이 다름>에서 오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당시 民衆의 意志와는 달리 主權이 상실된 時代的 狀況을 堯舜과 같은 時代로, 認識하고 日本의 強壓에 의해 허수아비가 된 임금을 堯舜과 같은 황제로 認識함으로써 그들 開化派의 本質이 親日賣國行爲로 직결되어 짐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종래의 가치관이나 社會相을 과장적으로 擧下시키고 日帝植民政策을 合理化하는 데 급급하게 된다.

『…황제 폐하께서 등극하시면서 덕을 헤아리시고 힘을 헤아리셔서 나라 힘에 미처갈만한 일은 일신 개혁하시니 중앙정부에는 매관매직하던 악습이 없어지고, 지방에는 잔학생령하던 관리가 날날이 면관이 되니 …中略… 나는 오늘 개혁하신 황제폐하의 만세나 부르고 국민동포의 만세나 부르고 죽겠소.』…『저 늙이 선유사의 심부름으로 내려온 노인가 보다. 저 늙을 잡아가지.』(pp. 468-9)

이러한 玉男의 主張은 反歷史的, 反民族的 發言으로서 그가 꿈꾸어 온 政治改革이나 開化意志가 결국은 굴종적 親日行爲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銀世界〉의 후반부는 대부분의 新小說이 지니고 있는 盲目的 外部志向의이며 親日에로의 順應主義²⁶⁾를 나타냈다. 그런 點에서 〈銀世界〉의 前後關係는 서로 相反된 思想的 基盤에서 출발하여 抵抗과 順應이라는 두 개의 現實觀을 同時에 보여 준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게 된다.

3. 前·後半部の 相互關係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銀世界〉의 前半부와 後半部 사이에는 作家意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아 왔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이들 前·後半部の 相互關係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言及한대로 〈銀世界〉의 前半部가 李人植에 의한 創作이 아니고 唱劇〈최병두타령〉의 改作이라는 점에서 많은 問題를 提起해 준다. 왜냐하면 唱劇〈최병두타령〉은 그 思想的 基盤이 民衆과 밀착되어진 作品인데 反하여 開化至上主義者 李人植이 그의 作品〈銀世界〉의 전반부로 〈최병두타령〉을 借用한 데는 적어도 그 나름대로의 作家的 意圖가 있었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李人植의 小説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作品으로 完結되어지기 보다는 續篇을 갖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血의 淚〉와 〈牧丹峰〉이 前·後篇의 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雉岳山〉도 前篇이 李人植에 의하여 쓰여지고 續篇은 作者를 달리하여 金教濟에 의하여 完結되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우며 〈銀世界〉를 검토하는 데 매우 示唆的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銀世界〉도 한 편의 小説로 볼 것이 아니라 前·後 二篇으로 認定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銀世界〉의 前後關係는 〈최병두타령〉의 續篇으로서 相互關係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後半部는 엄격히 말해 後日譚의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런데 〈銀世界〉의 前半部는 主人公이 죽음으로 끝나는 劇의 小説의 性格을 지니기 때문에 그 續篇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前半部의 主人公의 子女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겠다. 그렇게 볼 때 〈銀世界〉의 前後關係는 二代에 걸친 家族史의 小説의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銀世界〉를 家族史의 小説의 하나로 파악할 때 〈銀世界〉의 前·後半部에 있어서 現實認識의 態度가 相異한 것은 아버지 〈최병도〉로 代表되는 既成世代의 保守의 性格과 아들 〈玉男〉이로 代表되는 世代的 開化主義的

26) 申東旭: 新小說과 新文化受容, 韓國現代文學論所收, 博英社, p. 274.

성격이 相互 모순, 대립으로 世代間 現實認識의 差異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作品의 結末에서 새 世代의 現實認識 態度가 當代的 現實과 너무나 피리되어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開化至上主義者의 좌절을 分明히 밝혀 주었다고 하겠다.

Ⅲ. 結 論

지금까지 <銀世界>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銀世界>가 主題意識이 가장 뛰어나게,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作品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銀世界の 후반부를 中心으로 파악한 結果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전후 모순되는 사상적 기반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후반부의 主題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되고 있음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부의 思想的 基抵가 開化期를 危機로 인식한 衛正斥邪派와 연결되어 있으며, 후반부는 盲目的 外部志向의인 開化派의 思想을 그대로 受容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리하여 開化期小說의 두 類型이 결국 作品 <銀世界> 한 편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前半部에서 공격의 대상이었던 外勢의 侵略과 内部의 부패에 대한 강한 反撥意識이 <최병도>를 중심으로 한 民衆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힘은 후반부의 義兵으로 계승되어 진다. 그런데 후반부에 있어서 主人公으로 設定된 <옥남>이의 행위는 철저한 교아의식으로 前半部에서 否定의 대상이었던 外勢의 침략을 改革이란 이름으로 肯定하고, 前半部에서 肯定의 대상이었던 民衆의 정당한 義兵運動을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銀世界>에서 보이는 전·후반부의 관계는 서로 모순·대립의 관계이며, 이는 開化期의 두 가지 精神界를 보여 주고 있다는 데서 중요한 意味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銀世界>는 家族史的 小說의 성격을 지님으로써 保守的 勢力인 아버지와 開化勢力인 子女를 통해서 두 世代間의 思想的 基반의 異質性과 現實認識의 態度에 있어서 相異를 보여 주고 있음은 開化期의 精神界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作品의 結末에서 開化至上主義者들이 當代的 現實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좌절에 이르고 있음을 分明히 보여 주고 있음도 밝혀 두고자 한다.